

전주시, 지역 중기 수출길 개척

전주시가 글로벌 시장개척단 운영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에 새로운 판로를 제공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사)전주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와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 전북대학교 중소기업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주관한 최근 글로벌 시장개척단 활동을 통해 총 수출계약(예정) 2153만불의 성과를 이뤄냈다. 지역기업 17개사로 구성된 글로벌 시장개척단은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호치민(베트남)과 하노이(베트남)를 잇달아 방문, 현지 바이어들과의 1:1 수출상담회를 통해 총 상담건수 285건, 수출상

글로벌 시장개척단 통해 2153만불 수출계약 성과

담액 6181만불, 수출계약(예정) 2153만불, 현장MOU체결 851만불, 현장계약 9만불, 현장판매 13만불의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이번엔 과전된 엔투인, BKC, (유)세도퍼, (주)바로텍시너지, (주)씨에이코리아, 대승, 대륜산업(주), 주식회사 인텍, (유)천연담아, (주)위드네이처, (주)단테리온바이오팜, (주)디자인능부, 히스토리팜, (주)이엔이, 엘엔에스코리아, (주)이지픽, 나눔 등 시장개척단 참가기업 17개사는 식품, 피부미용, 화장품, 생활용품, 유아용품, 전자기기, 농업용품 등 다양한 품목으로

현지 바이어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는 후문이다.

실제,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국내 대기업의 진출 및 관련 주재원 증가에 따른 국내 식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시장개척단 참여기업인 천연담아는 현지 대형 유통점과의 상담을 통해 천연조미료 약 8900불 샘플을 보내기로 했다. 이 업체는 현지 유통점과 공동으로 시장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름 개선 화장품인 에이 지리스를 자체개발한 엘엔에스코리아

의 화장품은 상품성 및 시장성을 인정받아, 베트남 현지에서 8만불 상당의 제품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또, 비염치료기를 생산하는 비케이시의 경우도 베트남 현지 바이어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 현지에서 1440불의 계약 성과를 이뤄냈으며, 향후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추가 수출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기능성 마스크를 주 제품으로 참가한 주식회사 인텍은 고가의 기능성 마스크에 대한 현지 시장 확대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현지 생산이 가능한 바이어와 800만불 수출 MOU를 체결해 현지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재 기자



셀카찍는 신임 경찰

지난 2일 오전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288기 신임 경찰관 졸업식에서 한 졸업생이 이철성 경찰청장과 셀카를 찍고 있다. <사진=중앙경찰학교 제공>

완산구선관위, 서일초에 온라인 투표용지 발급기 지원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선)는 서일초등학교 학생입원선거에 투표용지 발급기를 활용한 투·개표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어 9월 중 완산초등학교·평화초등학교 학생입원선거에 온라인 투표, 중앙초등학교·효문초등학교·지곡초등학교 학생입원선거에 투표용지 발급기를 각각 지원한다.

온라인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책결정 및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대표자 선출 등을 PC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투표용지 발급기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에서 사전투표시 활용됐으며 투표용지를 투표소에서 발급해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완산구선관위는 "선거지원과 더불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학생들의 온라인투표 지원 등을 통한 투·개표 체험으로 미래유권자인 학생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바르게살기운동 전주협의회 법질서 확립 연중캠페인 실시

바르게살기운동 전주협의회(회장 박오상) 회장 20여명은 지난 1일 종합경기장 사거리에서 서로 믿고 사랑하는 좋은 사회건설을 위한 '법질서 확립' 캠페인을 실시했다.

법질서 캠페인은 매월 1일 전국 16개 시·도협의회와 232개 시·군·구협의회에서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박오상 회장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생활속 작은것에서 부터 법과 질서를 지켜나가는데 노력하고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편의점 상습절도 알바생 '덜미'

편의점에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아르바이트 점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2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음료와 담배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0월30일부터 최근까지 전주 시내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모두 18회에 걸쳐 캔커피와 햄버거, 담배, 즉석복권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새벽시간 편의점에 판매용으로 진열된 음료 등을 꺼내 먹고 즉석복권을 끊는 등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재 기자

전주 동산동 발마사지 봉사단 재능기부 펼쳐

동산동(동장 이남철) 소재 귀족발마사지(대표 최정애)회원 6명은 2일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를 통한 동네복지를 실천했다.

현재 지역주민 6명으로 구성된 귀족발마사지 봉사단은 어르신들 100세 건강지연 및 공경과 섬김의 사랑 실천을 위해 3년째 활동하고 있다.

발마사지 봉사회원들은 "어르신들의 웃음은 모습을 보면 행복하고 오히려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 나눔을 더 많이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남철 동장은 "온정의 사람이 넘치는 지역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발마사지 봉사자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어르신들이 존경 받는 따뜻한 행복한 동네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가동

전주시가 연간 1000만 관광객이 찾는 한옥마을의 주요관문인 전주역 주변 주차질서 확립과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해 CCTV를 이용한 단속에 나선다.

전주시는 전주역 앞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에 대한 계도 및 시험가동이 완료됨에 따라 5일 오전 7시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전주역 CCTV를 이용한 단속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시가 이처럼 CCTV를 이용한 주정차

위반 단속에 나서게 된 것은 지난해 4월 KTX가 개통된 이후 전주역 이용자가 늘면서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 가족과 지인들이 전주역 진출입로 불법 주정차가 만연해 차량의 소통방해 및 교통 혼잡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로 인한 주차민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6월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를 마치고 8월중 CCTV 설치를 완료했으며, 9월 4일까지 계도 및 시험가동을 통해 시스템을 최종 점검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 서부시장 주차장 준공

전통시장인 전주 서부시장·상점가에 대규모 주차장이 조성돼 이용이 편리해진다.

전주시는 2일 서부시장·상점가 주차장(완산구 효동2길 26)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정운천 국회의원(새누리당, 전주시), 시장상인 및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부시장·상점가 주차장' 준공식을 가졌다.

서부시장·상점가 주차장은 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주차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됐으며, 토지매입비 19억원과 건축비 18억원 등 총 37억원을 투자해 82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3층 주차장으로 건립됐다.

서부시장·상점가 주차장은 매일 오

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서부시장과 서부시장상점가를 방문하는 이용객들은 무료쿠폰을 받아 1시간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무료쿠폰이 없을 때는 기본 15분 무료로 매 30분당 500원의 이용요금이 부과된다.

시는 이번 주차장 준공으로 신선한 물건을 정과 텃, 인정까지 얻을 수 있는 서부시장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방문해 서부시장이 활기를 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주시 전통시장육성지원사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내 집처럼 방문할 수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조성하기 위한 고객 편의시설 지원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동학농민혁명 의미 재조명

전주시, 전문가 초청 특강

전주시가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민중의 열원과 저항이 담긴 민족 정신문화의 상징인 동학농민혁명을 배워나가고 있다.

전주시는 2일 덕진예술회관에서 시청 공무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정신과 동학농민혁명'의 저자인 원도연 교수(원광대학교 문화콘텐츠 전공)를 초청해 동학농민혁명사 특강을 가졌다.

원도연 교수는 이번 특강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의미와 전주정신'을 주제로 동학농민혁명의 배경과 전개과정, 21세기 동학농민혁명의 의미 등을 소개했다.

원 교수는 "전라도 고부에서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은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계 농민들을 주체로 하여 일어난 농민혁명운동으로 동학혁명 또는 갑오농민전쟁이었다"며 "반봉건·반외세

를 표방하며 일어난 역사상 최초의 민족운동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봉준의 주도로 1894년 2월 26일 고부에서 봉기의 깃발을 올린 지 약 2개월 만에 이뤄진 동학농민군의 전주성 무혈입성(1894년 4월 27일)에 대해서는 "폭장지대 전라도의 중심지이자 조선왕조의 분향이라 할 전주를 점령한 봉기 과정에서 동학농민군이 거둔 최대의 승리이자 성과였다"면서 전주 동학농민혁명사의 중심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원 교수는 "조선왕조 분향으로서 당시 전라감영(전라남북도 및 제주도 관할)이 있던 전주성 함락과 근대 민주주의의 태동으로 볼 수 있는 농민군과 관군의 폐정개혁 실행을 위한 전주화약 체결, 집강소 설치 등은 그 의미와 상징성 그리고 역사성에 있어 매우 큰 사건이었다"며 "동학농민혁명에 있어서 전주의 민족사적 의미는 더욱 남다르다"고 덧붙였다.

/김영재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